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²⁶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²⁷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출21:26-27)

속 사람은 겉 사람의 협조, 함께 함이 없으면 영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사람 또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사람이나 겉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진리가 사라지면, 겉 사람은 더 이상 속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9061)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9061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internal man cannot live a spiritual life unless the external man is in agreement; and therefore a man cannot be regenerated unless the natural man also is regenerated. From this it follows that if the truth of faith in the natural or external man shall be extinguished, it cannot any longer serve the internal man.

이는 오늘 본문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중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He shall let him go free for his eye)에 대한 주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전과 종 사이 폭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전이 종을 때려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는 경우, 종을 그냥 방면(放免)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이 단순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무슨 재미난(?) 규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출21:26-27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속뜻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사람의 거듭남과 관련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²⁶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²⁷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전과 종이 각각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눈과 이가 또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왜 종을 남종, 여종으로 구별하는지, 그리고 종을 친다, 때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말씀에서 ‘상전’(master)은 ‘속 사람’(the internal man)을, ‘종’(servant)은 ‘겉 사람’(the external man)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개의

의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속 사람’이라고 하는 내적 의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속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의식, 즉 ‘겉 사람’이라고 부르는 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의식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서를 통해 밝히신 이유들 중 하나는, ‘겉 사람은 속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 사람이 없으면 속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는데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속 사람이 없으면 겉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용물은 없는데 그릇만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 겉 사람은 모두 중요하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을 나누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은 겉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과 소통하실 수 없고, 오직 속 사람을 통해서만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겉 사람은 대단히 감각적(sensuous)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 사람은 오직 감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각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이고 내적이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결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에는 그러한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무한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속 사람을 통해서만 인간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겉 사람하고는 소통하실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겉 사람 안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향이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하고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일을 이기적 목적이 아닌, 일 자체의 목적을 위해 사랑할 때만 우리와 만나시고, 함께 결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자아는 오직 자기중심적이며, 완전히 이기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겉 사람의 자아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그러므로 주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아의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오로지 속 사람을 통해서만 겉 사람 안의 자아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거듭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서 가운데서 보면, 겉 사람은 궁극적으로 속 사람을 섬겨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겉 사람을 종이라 하고, 속 사람을 상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이 종의 눈과 이를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종의 눈과 이**’는 겉 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눈**’은 자연적 진리를, ‘**이**’는 감각적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표현되는 감각적 진리보다는 눈으로 표현되는 자연적 진리가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이로 썹는 것은 모두 진리를 이해하는 모습인데, 눈보다는 이가 더 밖에 있어(*the exterior intellectual, the ultimate of the natural*) 감각적(*the sensuous*)이기 때문

출21:26-27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입니다. 영적으로는 밖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각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당시 대왕 헤롯의 솔로몬 성전 건축물을 가리켜 제자들이 대단한 듯 주님께 말씀드리자 주님의 말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고,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은 나중에 감람산에서 주님께 조용히 나아와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대한 주님의 많은 말씀 중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를테면 이 말씀을 글자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

리를 감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끝,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글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겉 글자의 뜻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감각적 진리입니다. 반면, 자연적인 진리는 똑같이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진리를 터득 하더라도, 글자의 뜻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글자의 뜻으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해서 얻는 교리 같은 것들이 모두 자연적 진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종’(manservant)과 ‘여종’(maidservant)은 무엇일까요? ‘남종’은 겉 사람의 진리 속에 들어있는 진리에 대한 이해력(understanding)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은 진리에 대한 애정(affection)을 의미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또는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아무도 진

‘상전과 중, 속 사람과 겉 사람’

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중’과 ‘여중’은 진리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애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의 ‘눈’과 ‘이’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된 진리들입니다. 따라서 상전이 중의 눈과 이를 다치게 했다는 것은 ‘속 사람이 겉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 진리와 감각적 진리를 훼손시켰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이 겉 사람의 진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며, 그 결과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처음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겉 사람은 대개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진리가 감각적 진리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이 겉 사람 안에 있는 감각적 진리를 그의 속 사람을 통해 점점 차원 높은 진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언제 바뀌 주실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바뀌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낮은 차원의 진리라도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낮은 진리를 보다 높은 진

리로 바꾸어 주시며, 그때 우리 안의 감각적 진리는 자연적 진리로 거듭나고, 자연적 진리는 다시 영적 진리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속 사람은 항상 주님과 소통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 사람은 땅에 있지만, 속 사람은 언제나 천국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속 사람이 진리를 잘못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서의 가르침을 보면, 속 사람이라도 악한 욕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 사람이 겉 사람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며, 바로 그때가 속 사람이 겉 사람의 진리를 훼손하는 때입니다. 훼손한다는 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리를 왜곡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피할

출21:26-27

‘상전과 중, 속 사람과 겉 사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Divine Providence) 119번 글에 보면,

겉 사람에게 있는 악과 속 사람의 악은 한 나무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와 같다. 그러므로 겉 사람의 악은 악 그 자체이고, 속 사람의 악은 그 악에서 나오는 욕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즉 자신의 의지로 그것들을 씻어 내려 노력할 때, 주님은 그 악과 악한 욕망을 씻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 사람 안에 악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불결한 욕망들이 일어나 내적 의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듯, 즉 자신의 의지로 그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빛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 안에서 진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악의 유혹에 미혹되거나 타협할 때, 주님을 향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다시 악과 싸울 때, 다시 문이 열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먹고 마셔서 자신의 살과 피게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에 의해서 겉 사람의 진리가 잘못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교회 교리를 배울 때 자기도 모르게 곡해하게 됩니다. 진리는 또 다른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진리가 잘못되면 다른 진리도 연속적으로 왜곡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왜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꼭되면 선을 행하려고 해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궤도를 벗어난 열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그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선을 행하려 해도 결과적으로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종의 눈과 이가 다치게 되면 종을 놓아주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상전과 종이 분리된다는 뜻이며, 그러니까 겉 사람이 속 사람을 위해 다시는 봉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수많은 거짓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내면에서 진리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내면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 사람 안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아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아담의 갈비뼈로 묘사합니다. 갈비뼈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은 철저히 챙기고, 이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는 안쪽에 있는 심장과 폐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향, 그리고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성향 때문에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에게 속 사람을 주셨습니다. 속 사람을 통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속 사람을 통해 타고난 자아를 천국적 자아로 바꾸어 주고자 하

출21:26-27

‘상전과 종, 속 사람과 겉 사람’

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아가 바뀌는 과정에서 때로는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속 사람에 의해서 겉 사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상전이 종의 눈과 이를 다치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거듭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이상적 조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 9061번 글에 보면,

속 사람은 겉 사람의 협조, 함께함이 없으면 영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사람 또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사람이나 겉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진리가 사라지면, 겉 사람은 더 이상 속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9061)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면서 자아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천국 빛을 통해서 진리를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진리와 선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아멘

원본

2017-12-03(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6(D5)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